

Style

조선일보

FALL 2018





MICHAEL
MICHAEL KORS



a new york story Michael Kors

패션 디자이너, 뉴욕 시티, 어번 시크. 모던 패션을 대변하는 키워드에서 마이클 코어스는 상징적인 존재다. 세련된 도시 여성을 위한 모든 것이 마이클 코어스의 손끝에서 창조된다. 현대적인 여성상의 상징이자 실용적인 아메리칸 패션 브랜드인 마이클 코어스의 모든 것.

어포터블 럭셔리 상징, 마이클 코어스

뉴욕 패션 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쇼는 역시, 마이클 코어스다. 2018 가을 컬렉션에서는 어느 때보다 과감한 패턴 플레이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플러워 프린트, 카모플라주, 레오파드, 지브라 패턴, 타탄 체크, 야기일 체크 등 다양한 패턴의 아이템을 스타일링해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했다는 평. "누구나 옷장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자주 꺼내 입을 수 있는 아이코닉한 아이템을 선보이고자 했다"는 디자이너의 말대로, 일상에서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런웨이를 지배했다. 이러한 에너지적인 마이클 코어스의 룩은 뉴욕과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트렌디하면서 시크한 룩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퀄리티 높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어포터블 럭셔리' (affordable luxury)는 마이클 코어스를 대변하는 단어도기도 하다. 프리미엄 라인인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Michael Kors Collection)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MICHAEL Michael Kors) 라인으로 구성된 레디투웨어는 물론 핸드백, 슈즈, 워치, 액세서리, 맨즈 제품까지, 패션 상품군 전체를 망라하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MK'라는 심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브랜드의 자유로운 감성과 럭셔리한 코드를 트렌디하게 표현하는 디자이너 고유의 매력은 1984년 첫 컬렉션을 론칭했을 때 이미 단번에 인정받았다. 버그도 프 굿맨과 삭스 피프스 에비뉴 같은 뉴욕 최고의 백화점에 입점하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는 뉴욕을 사랑하고,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에게 맨해튼의 화려함과 세련된 모습을 컬렉션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여기에 디자인적인 감각과 상업적인 감각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오래도록 브랜드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독보적인 백 & 슈즈의 가치

마이클 코어스를 세계적인 브랜드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역시 백 & 슈즈 컬렉션이다. 마이클 코어스의 가방을 구매하지 않은 여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고 대중적인 백 & 슈즈 컬렉션을 갖추고 있는데, 실용적이면서도 트렌디한 것은 물론 멋진 컬러 매치와 내구성이 뛰어난 하드웨어가 브랜드를 통련하게 만든 비결이다. 실제로 솔더 스트랩을 탈착할 수 있는 스퀘어 형태의 여성용 비즈니스 백과 어떤 룩에나 가볍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사철 백은 마이클 코어스를 대표하는 백 컬렉션이 되었다. 퀄리티가 뛰어난 레더를 사용한 부츠와 스틸레토 힐 역시 오랜 노하우를 담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나치게 튀지 않고 세련된 에티튜드를 완성하는 현실 속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마이클 코어스의 이번 시즌 백 & 컬렉션 역시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2018년 가을,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이 가격과 실용성, 세련된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럭셔리한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1 2018 가을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쇼에는 블레이드 라이벌리, 애플리 블린트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석해 디자이너의 상상적인 스토리를 축하해주었다. 2 과감한 패턴 플레이가 돋보이는 이번 시즌 광고 비주얼. 3 공방적이고 활기찬 에-터널로 세계를 사로잡은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 4, 7 타탄 체크와 야기일 체크, 플라워 프린트까지, 다양한 모티브가 컬렉션을 채웠다. 5, 6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인 데이비드 다운턴(David Downton)이 참여한 백 컬렉션.



MICHAEL KORS COLLECTION

에스닉 나뭇잎 프린트의
블루 플라워 블라우스 21만원,
스카니 플라이어 팬츠 27만원,
레디 소재 블레이드 샌들 29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Urban GYPSY

자유로움과 여성스러움, 배우로서의
깊은 숨결이 느껴지는 이나영과 마이클 코어스의 오늘.
photographed by kim hee june



체인 장식을 더한 실카한 소재의 슬리브 체인 톱 23만원, 벨벳 소재 미디스커트 29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슬림한 핏이 돋보이는 레더 소재 스웨이드 코트 1백30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세련되고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완성해주는 플리워 러플 드레스 29만원, 블랙 컬러 에이버리 부츠 49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어두운 레드 컬러 크롭트 피 재킷 69만원, 톨립 셔츠 드레스 35만원, 크로스 본디 카메라 백 45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레드 컬러 탱크 림 플레어 드레스 35만원, 칼리 시어링 코트 1백65만원, 옐로 컬러 캐리 스몰 버킷 백 59만원, 블랙 컬러 키튼 부티 39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골드도트 파자마 톱,
골드도트 파자마 팬츠 각 35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베이지 컬러 사이링 코튼 코트 2백90만원, 프린지 터틀넥 스웨터 35만원, 버튼 프린트 스커트 21만원, 플린스 미디어엄 사철 백 55만원 모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헤어 김장환
메이크업 손대식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주영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이지현
어시스턴트 김은서

문의 마이클 코어스(창당 플래그십 스토어 02-546-6090)

fall in Love

도시적이면서 자유로운 매력을 담은 마이클 코어스의 실용적인 액세서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롤린스(Rollins) 미디엄 사첵 백
러사리한 바깥과 깔끔한 안쪽의 인장적인 형태가 매력적인 리더 백 55만원.
롤린스(Rollins) 스몰 사첵 백
이차적인 블루 컬러의 리더 백, 사이드 패들을 이용해 두 가지 형태로 연출할 수 있다. 51만원.
워트니(Whitney) 라지 솔더백
이번 시즌 주요 테마인 이번 집시 스타일링에서 영감을 받은 마이클 코어스의 신상품. 빈티지한 느낌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모두 싣었다. 55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캐리(Cary) 스몰 버킷 백
스웨이드 소재와 그로벳 디테일의 버킷 백, 드로스트링 덕분에 가방 입구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59만원.



젬마(Gemma) 플랫폼 부티
마이클 코어스 부티 중 가장 인기 높았던 젬마 라인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번 시즌에는 플랫폼으로 출시해 더욱 실용적이다. 43만원.



팔로마(Paloma) 로퍼
감성적인 메탈 플레이트 장식의 멋스러운 로퍼. 클래식한 느낌과 트렌디한 분위기를 모두 갖췄다. 27만원.



워트니(Whitney) 라지 솔더백
1970년대 실루엣과 가방 장식을 집묵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이번 시즌 키 백. 소장 가치가 높은 캐주얼 브라운 컬러가 매력적이다. 55만원. 문의 02-546-6090 에디터 배미진





MICHAEL MICHAEL KORS